

2024학년도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모음집

2024학년도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개요

일 정

2024년 3월 ~ 2025년 1월 / 총 11개월

목 적

참여자들이 각 인권단체에서 약 6개월간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원활동 방식을 통해 인권단체의 고유하고 현실감 있는 활동 영역을 직접 경험하고, 인권 사각지대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인권활동가가 갖추어야 할 인권 감수성과 소양을 쌓는다

결 과

참여 학생 : 총 9명 (대학원생 1명, 학부생 8명)

참여 인권단체 : 총 8개 단체

2024학년도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개요



자원활동가 모집

2024학년도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자원활동가 모집



모집기간 : 2024년 4월 15일(월) ~ 5월 5일(일)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언론인권센터	진실의 힘	피난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모집대상

- 고려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휴학생
- 인권단체 활동에 참여해보고 싶거나 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학생 누구나

참여단체

- 국제민주연대 / 노동건강연대 / 반올림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 언론인권센터 / 진실의힘
피난처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신청방법

- 인권단체 소개 및 참여안내문 확인
- 쿠키이브 또는 이메일 신청
- 인권단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선발

사전설명회

사전설명회 자료



사전설명회 일정 안내

2024.05.30(목) 동원글로벌리더십홀 B1 글로벌리더스라운지

시간 (분)	내용	진행
17:00 - 17:05 (5분)	프로그램 및 사전설명회 일정 안내	
17:05 - 17:45 (40분)	인권단체 소개 및 자원활동 안내 1부 (ZOOM)	언론인권센터 허찬행
17:45 - 18:25 (40분)	인권단체 소개 및 자원활동 안내 2부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18:25 - 18:40 (15분)	프로그램 제출서류 안내	

사전설명회 행사 사진



평가세미나

사전설명회 행사 사진

활동소감

- 인권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 싶었음
-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해보고 싶었음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제공 > 회의감, 지침
- 지금의 결론: 나를 위한 이타주의



발표자 : 이종윤 (사회학과)

사전설명회 행사 사진



피난처의 다양한 행사

- 01 국제평 활동가, 간사
- 02 난민권 기부물품...

발표자 : 김주현 (사회학과)

결과보고서 작성자

국제민주연대

- 신의현(언어학과)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 이가영(심리학부)
- 이종윤(사회학과)

언론인권연대

- 김주현(사회학과)
- 김효선(미디어학과)
- 배석준(정치외교학과)

진실의힘

- 추수연(중어중문학과)

피난처

- 김주현(사회학과)
- 오여진(사회학과)

국제민주연대

신의현 (문과대학 언어학과)

토론회 및 기자회견 참관, 본부 업무 보조

나현필 국장님의 배려로, 학부생 신분에서 접하기 힘든 다양한 사회의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한국오티컬하이테크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화이트 헬멧 대표를 초청한 시리아 인권 상황과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국회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고발 기자회견을 참관한 것이었습니다. 사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그리고 다양한 갈등과 불합리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활동가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국회라는 장소가 국회의원들 뿐만이 아닌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열려 있는 공간이란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기자회견에서는 국제민주연대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문제를 위해 힘쓰시는 모습이 무척 감명

깊었습니다. 또한 많은 활동가 분들, 어쩌면 평범한 시민일 수도 있는 분들이 소신 있게 잘 정리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문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넘어서서 저도 그런 상황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용기를 갖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용기를 내기 위해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 그것이 야기된 복합적인 원인과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고심해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서 제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이가영 (심리학부)

난민의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는 난민 지원 단체로 한국어 학교, 실무자 교육, 아동 보육비 지원, 난민 청소년 장학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 난민의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부서에서 활동하였는데, 임상 및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는 실질적인 활동이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MAP에서 이번 하반기에 했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 정신건강 지원으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의 종합심리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을 예약하고, 검사 및 해석 상담에 동행하며 통역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온 아동 중 2명의 사례 관리를 맡아 언어/놀이치료사

선생님께 매주 치료 내용을 공유받으며 치료기록지를 작성하고, 부모님과 치료사 선생님의 소통을 매개하였습니다. 특히, 검사 실시가 어려울 만큼 상대방과 상호작용이 어렵고 산만하여 중증 자폐 진단을 받은 아동이 있었는데, 10회기 치료 이후, 눈맞춤과 발화가 생겼으며 치료를 계속 진행하면 중증 자폐가 아닌 발달 지연이나 언어 지연 등으로 진단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의료적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시기적절한 치료가 중요한 이유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성인 난민 또는 난민 신청자분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단체에 연락을 주신 경우, 단체 선생님과 함께 면담을 통해 그 분의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한 후, 심리 상담센터나 정신과로 연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곳을 찾는 것이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이가영 (심리학부)

난민의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가장 큰 장벽으로 느껴졌으며, 통역을 대동하는 등 언어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난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민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한국난민정신건강증진협의체(MHARK)의 홈페이지 구축 및 판촉물 제작 등을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엔난민기구, 난민 통역단체, 난민법률지원 NGO, 한국여성정신의학회에서 오신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난민이라는 특수하면서도 소외되어있는 의료 사각지대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연대와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이종윤 (문과대학 사회학과)
난민 청년 지원 장학 사업 운영

본래 가지고 있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안타까움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제 학생 시절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 교내 인권성평등 센터를 통해 인권단체 활동가 기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시절 자신의 난민 배경을 설명해주었던 친구를 통해 국내 난민의 존재에 대해 사실 제대로 인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다양한 인권 단체가 있었지만, 제가 힘을 잃지 않고 오래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MAP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활동가로 행동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열정이 함께하기 어려운 인권 분야에 저와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이들을 만나 소통하고 힘을 얻을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중간 활동에 지치거나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니 내 처음의 의도는 잊은 채 한국 사회 전반의 준비되지 않은 모습과 미성숙함,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의심이 겹쳐져 활동이 힘들고 난민을 마주하는 것에 피로함을 느꼈습니다. 겨우 반년간의 활동일 뿐이지만,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에 스스로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감정을 받아들이고 당장 해야 할 일을 해나가다보니 즐거운 기억도 만들 수 있었고, 12월이 되어서는 나름의 생각 정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에의 조력과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난민 이전에 한국인도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사회에 난민을 고려하는 것이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등 여러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내가 잘 살려면, 우리가 잘 살려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행동할 수 있는 세상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동을 멈출 수 없다는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이종윤 (문과대학 사회학과)
난민 청년 지원 장학 사업 운영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에 수많은 난민들이 여러 상처와 어려움을 품은 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온전히 환영받고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바로 내일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래도 힘이 나곤 합니다.

만약 내가 언어도 문화도 접해본 적 없는 나라에 본국의 상황으로 인해 비자발적 이주를 해야한다면 적응을 해낼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배워본 적도 없는 언어, 다른 음식, 다른 사람과 문화, 본국에서 가져온 스트레스와 불안을 딛고 정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전쟁과 분쟁이 멈추기를 바랍니다. 난민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는 사회가 다가오길 바랍니다.

언론인권센터

김주현 (문과대학 사회학과)
스터디 및 토론

활동 과정

- 1) Hate Speech에 대한 전반적 내용 정리
- 2) 세대, 젠더, 성소수자 등 포커싱할 영역의 선정
- 3) 활동원들 각자 분석한 학술논문 발표
- 4) 스터디 및 모니터링 지속
- 5) 선행연구분석과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페이퍼 작성 후 발표
(1월 14일 예정)

활동 소감

혐오 발언(헤이트스피치)이라는 평소에는 인지하지 않는 영역의 병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꾸준히 공부할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별 주체들이 스스로의 의견을 제시할 공간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헤이트스피치의 발생빈도와 강도는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사회 내의 권력관계는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학부에서 노년사회학을 수강한 경험에 따라, 세대 담론을 중심으로 혐오발언을 살펴보았고, 더욱 구체적으로 영역을 설정하여 노인에 대한 혐오발언을 중심으로 페이퍼를 작성하였습니다.

언론인권센터

김효선 (일반대학원 미디어학과)

혐오표현에 대한 언론학계의 연구 분석

언론인권센터 자원활동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동료들과 여러 관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문적 배움뿐 아니라 생각이 맞는 동료들도 얻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언론인권센터 자원봉사팀은 정치외교학, 사회학, 언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어 한 가지 주제로도 여러 학문적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혐오표현(hatespeech)’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으며 초반에는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혐오표현 현황’에 대한 짧은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교수님과 다양한 토론을 하며 현황에 대한 분석보고서보다는 ‘혐오표현’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구조적 역사를 살펴보고 각자 공부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언론인권센터 자원봉사팀은 각각 노인,

젠더, 세대에 대한 혐오표현에 관심이 있었으며 초반 모임에서는 논문을 1-2편씩 읽고 정리해서 서로 논문에 대해 소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젠더와 관련된 언론학계의 논문들을 소개했으며, 구체적으로 ‘온라인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특징과 내용 규제 쟁점’, ‘혐오표현과 젠더 차별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 온라인 공간과 여성 혐오 정서’ 등 다양한 논문을 정리했습니다. 매 모임마다 논문에 대해서 정리하고 토론하거나 관련 현실 사례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모임에는 지금까지의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짧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활동을 진행하며 권력담론과 이데올로기로서의 혐오표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혐오표현을 만들어낸

언론인권센터

김효선 (일반대학원 미디어학과)

혐오표현에 대한 언론학계의 연구 분석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 경제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었던 감사한 활동이었습니다. 바쁜 학교생활 와중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으며, 활동이 종료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언론인권센터

배석준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혐오표현 관련 스터디 및 레포트 작성

지난 한 학기 동안 언론인권센터에서 혐오표현에 관해 스터디하고, 관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3명의 학생, 1명의 교수님이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릉에서 모여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각자 조사한 바를 공유하고 대략적인 활동의 가닥을 잡아가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처음 활동의 목표는 그룹만의 혐오표현 기준을 정립하고, 유튜브 언론 채널 중 상위 10개를 선정하여 모니터링 하며 혐오표현이 등장하는지를 검토한 다음, 관련된 레포트를 작성 및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도교수님의 바쁜 일정과 각자 스터디원들의 사정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처음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웠고, 각 스터디원이 학과가 다르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각자의 학업 영역에서 혐오표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성소수자, 젠더, 세대라는 주제에 따른 혐오표현의 대표적인

1

사례에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학우분들을 만나고, 교수님 및 인권센터 담당자 분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인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학구적인 관심을 키울 수 있었고,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레포트를 작성하는 경험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권을 학문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경험을 할 수 있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처음 계획했을 때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는 점, 단체에 따라,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언론인권센터 활동의 경우 다소 학구적인 활동이 이뤄져서 실제로 인권이 현실에 실현되는 영역을 느끼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기는 어려웠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2

진실의힘

추수연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국가폭력 피해자 재판 기록 스캔 및 정리

일주일에 한 번, 많아봤자 4시간만 일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업무는 조작간첩 피해자분들의 원심 및 재심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스캔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기록을 읽고, 기록목록에 따라 라벨링하고, 잘 멈추는 복합기에 스캔하고, 양식에 맞춰 스캔 자료를 정리하면 됩니다. 스캔은 금방인데, 이 작업에서 중요한 건 라벨링을 하면서 진득하게 자료를 정독하는 것입니다. 저는 손이 느려서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스캔하는 데 급급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료를 읽으면서 자료를 읽으면서 국가폭력이 단순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잔재해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록에 담긴 피해자분들의 이야기에 뒤늦게 귀 기울인 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항상 한 사건 정리가 끝나면

1

동료들과 선생님과 함께 느낀 바를 나눴는데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영화속-재생원 피해자 인터뷰 녹음본 스크립트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형제복지원과 비슷한 케이스인데, 처음 들은 내용들이라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인터뷰이 분은 그나마 트라우마가 덜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피해자분들은 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서 씁쓸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진실의힘 설립자들 작은다큐를 홍보할 릴스와 카드뉴스도 제작했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 계정도 없던 조직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홍보효과만 노리고 고문 등 자극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가끔은 진실의힘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을 국제택배로 부치거나, 상영회 준비를 위해 데코레이션 풍선을

2

진실의힘

추수연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국가폭력 피해자 재판 기록 스캔 및 정리

분다는 등 단순업무도 맡았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진실의 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폭력이라는 주제에 경각심을 갖고 힘을 올바른 데 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툴렀던 인턴을 따뜻하게 지도해주신 진실의힘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피난처

김주현 (문과대학 사회학과)

난민 인테이크, 법률문서 보조, 의료지원 통역, COI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기회를 주신 감사한 단체입니다. 지망하던 단체가 따로 있었기에 특별한 마음으로 피난처까지 동시에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얻은 것이 정말 많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며 활동할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경험한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문서 보조(소장 작성, 재신청 소장 작성)
- 법률지원 번역(불인정결정사유서, 심리검사보고서, 이의신청소명자료 등)
- 의료지원 통역(병원 동행 및 통역, 병원 이용 후 설문조사 통역)
- COI 모니터링(에티오피아, 카메룬 등)

- 난민 인테이크 참관 및 난민현황 문서 연동작업
- Notion을 활용한 활동가 메뉴얼 작성
- 생활 지원(직업훈련 리서치, 열국아이학교 보조교사, 기부물품 정리)
- 홍보 콘텐츠 제작(카드뉴스, 블로그, 릴스 음악 편집 등)
- 문헌 연구(미국 TPS 제도, 캐나다 난민행정 모델, 고문현황 엑셀 정리)

이처럼 제가 적극적으로 요청만 드리면 단체에서 수행하시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밖에도 피난처의 주요행사들인 난민플리마켓이나 국제평화마라톤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당신들의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선생님들께 제가 오히려 매일매일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피난처

오여진 (문과대학 사회학과)

기본적 난민 응대, database 정리, sns 콘텐츠 제작

제가 자원활동을 한 곳은 국제난민지원센터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는 우리나라 난민법 제정부터 영향을 미친, 올해로 25년째 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 방문하는 난민들은 난민신청 및 소송을 주로 받을 수 있으며,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등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난민 인식 개선 및 난민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피난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10명 내외의 대표님, 선교사님, 인턴께서 일하시고 계시며,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올 때는 하루에 세~네 명이 오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가져온 컴퓨터로 일합니다. 난민의 법률적인 부분을 주로 지원하는 IPD팀과, 난민의 생활적인 부분을 주로 지원하는 생활지원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피난처에서 주로 세 가지 업무를 하였습니다. 첫번째는

1

기본적인 난민 응대입니다. 방문하시는 난민들은 주로 예약하고 오기 때문에 기관 선생님들이 응대하십니다. 그렇지만 가끔 갑자기 도움이 필요해서, 혹은 예약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피난처를 방문하시는 난민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기관 선생님들이 난민에게 필요한 서류를 만들고 있을 때 추가 응대를 자원봉사자에게 요청드리기도 합니다. 처음 피난처에 오신 분께는 무조건적 환대와 안부 인사를 드리고, 차 혹은 커피를 권합니다. 이후 어떤 선생님과 약속을 잡고 오셨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오셨는지 확인하고 담당 선생님께 전달드리면 됩니다. 피난처 내에 있는 기부 받은 물품으로 구성된 ‘나눔창고’에서 필요한 물품을 꺼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두번째는 기관 데이터베이스 정리 업무입니다. 피난처는

2

피난처

오여진 (문과대학 사회학과)

기본적 난민 응대, database 정리, sns 콘텐츠 제작

난민분께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추후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난민 소송 진행 상황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정확한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공통 폴더에 적어 놓은 이 기록을 각 난민별(개인별) 폴더로 옮기는 작업은 선생님들께서 바쁘셔서 하기 어려우십니다. 단순 복사 붙여넣기 작업이지만, 전 이 작업을 주로 담당하여 했습니다.

세번째는 피난처 인스타그램에 올릴 콘텐츠 제작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콘텐츠 마케팅에 관심이 생겨 이 일을 해 보고 싶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피난처 홍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이를 주로 시켜주셨습니다. 기관의 캔바 및 미리캔버스 계정도 있어, 만들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주로 담당한 일은 이 정도였지만, 다른 일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적십자병원과 협업하여 진행한 ‘독감무료예방접종’ 사업의 전반을 주도하기도 했고, 프랑스어만 할 수 있어 서울의 지하철을 혼자 탈 수 없는 난민과 동행하여 출입국사무소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일은 아니지만, 피난처의 후원 행사에 스태프로 참여하기도 했고, 피난처 난민과 함께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일을 담당했지만, 자원봉사자의 역량에 따라 하는 일은 다양했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난민분께 온 법원 서류를 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기도 했고, 국제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고소장 쓰는 법 등을 배우시기도 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피난처 내에 있는 남성 숙소에 거주하는 난민분들께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만약 아동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난민 아동 및 보호가 필요한 이주민 아동을 교육하는

피난처

오여진 (문과대학 사회학과)

기본적 난민 응대, database 정리, sns 콘텐츠 제작

이태원에 있는 ‘열국아이학교’에서 수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왔다갔다 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자원봉사자끼리 같은 책상에 앉아 일을 하기에 서로 친해지기도 좋습니다. 피난처 선생님들도 원하시는 업무가 무엇인지 여쭙보고, 그 업무를 시켜주시기에, 원하시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중 언제든 가셔도 상관없으나, 다른 요일에는 피난처에서 밥을 제공하지만, 수요일에는 근처에서 밥을 사 먹습니다. 또한, 특정 요일의 오전에는 선생님들 혹은 각 팀끼리 회의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올지 상의하고 결정하기 전, 선생님들께 여쭙보면 됩니다.

난민 지원센터에서 봉사하면서도 정작 난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난민을 직접 응대하는 일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맡으시기에, 난민을 지나가면서 마주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야기할 기회는 드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했습니다. 숙소에서 사는 난민과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스몰토크를 하곤 했습니다. 간단한 난민 응대는 적극적으로 맡아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저의 성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원어민과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오랜만에 만난 난민분과 어깨동무를 하며 안부를 묻게 되었습니다. 또한, 난민 인정을 받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삶을 보며, 삶의 안정성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난처

오여진 (문과대학 사회학과)

기본적 난민 응대, database 정리, sns 콘텐츠 제작

무엇보다 기억에 남았던 일은, 난민과 함께 마라톤 대회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피난처를 드나들며 자주 보았던 숙소 난민분과 정작 친해지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같이 스트레칭하고, 대회가 끝난 후 같이 밥을 먹으며 급속도로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이 땀을 흘리며 자기소개를 하고, 스몰토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밥 맛있다’, ‘아 뛰니까 힘들다’와 같은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나와 똑같은 청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서야 난민을 난민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극도로 낮은 데도 꾸준히 난민 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긍정적인 난민 인식을 위해 발로 뛰는 피난처 사람들과,

난민 인정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난민을 보며, 동료 시민으로서 책임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다시 돌아가면 죽을 것이 뻔한 사람들에게 체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도의적 의무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난민에 관해 끊임없이 목소리 내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후원하고, 연대하고자 합니다.

거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활동이 끝난 지금,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험기간 등 바쁘거나, 아플 때는 전날 혹은 당일 아침에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괜찮다고 안 와도 된다고 해주십니다. 봉사 시작 시간도 자신이 정해서 오면 됩니다. 또한 업무도 유동적이고, 데드라인이 크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있다가 가도 된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피난처의 분위기였습니다. 국제적인 곳이어서

피난처

오여진 (문과대학 사회학과)

기본적 난민 응대, database 정리, sns 콘텐츠 제작

그런지, 피난처 선생님들과 난민들은 모두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쉽게 물어볼 수 있고, 서로의 이름과 반말로 편안하게 일하시는 모습에서 (남들이 말하는 가족 같은 기업이 아니라, 정말 직원들이 서로 아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어른은 저런 어른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쁘신 데도 시간 날 때마다 끊임없이 저와 이야기해주시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상당히 많은 난민 케이스 하나하나를 모두 세심히 신경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0년 이상 현업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며 난민 인식을 위해 애쓰시는 대표님부터 그 생생한 어른이었습니다. 저도 신뢰할 수 있고, 서로 마음껏 껴안아도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이 재미없더라도 이런 어른들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근무 분위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저의 직업 가치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난민도 존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자신의 유능함도 존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 이름은 옴비>라는 책을 초등학생 때 읽은 이후부터 난민에 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2024년 2학기, <내 이름의 옴비>의 주인공을 도와주었던 난민지원센터에서 자원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돕는 삶을 이때까지는 상상만 해 왔는데, 이 기회를 통해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을 넘어서 시민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을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는 염원을 가진 모두가 피난처에서 활동해보았으면 합니다.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KOREA UNIVERSITY
The Center for Human Rights & Gender Equity